



장수군자봉센터, 어르신 위한 생신 상 차려드려

사)장수군자봉센터(이사장육종순)에서는 장수군의용소방대연합회(김재문, 송영자),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김광순)와 함께 28일 침천면 조신 마을회관에서 장수군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장수군자봉센터 이사회(이)로 운영되며 장수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수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어르신을 위한 선물 및 2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속카스테라빵을 직접 만들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8일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음식(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조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를 진행하여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 삼학동 한성일렉스, 착한가게 동참

군산시 삼학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명옥)가 한성일렉스(대표 모영택)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성일렉스는 조명 및 전기자재 등의 판매업체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게 된다.

모영택 한성일렉스대표는 "선행은 남몰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터라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마음이 전달되어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모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구천동농협, '사랑의 쌀빵 나눔 행사' 가저

우리 쌀을 활용한 제빵 교육에 참여한 구천동농협 농가주부회원들이 최근 쌀빵을 직접 만들어 관내 지역이동센터에 쌀빵을 전달하는 훈훈함을 엿보았다.

농가주부회원 12명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쌀빵 80여개와 우유를 실천면에 위치한 솔로몬 지역이동센터와 무풍면에 위치한 아침에 지역이동센터에 전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행복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바쁜 농사일을 접어들고 나눔활동을 위해 참여해주신 농가주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동향면지사협, 취약계층 밀반찬 봉사 추진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계현, 이철식)는 28일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행복더하기 밀반찬지원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행복더하기' 사업은 마을복지 역점사업으로 동향면 기초생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했다. 지난해 취약계층 272가구에 밀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으며 코로나19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사업이다.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위원 10여명은 불고기 및 3가지 밀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60명의 이웃에게 일일이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안계현 면장은 "취약계층을 찾아 살피고 서비스 하는 마을복지 실천에 힘쓰는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더욱 두루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폐지 팔아 모은 200만원 기부

홍경식 씨, '전주사랑'에 3년 총 400만원 기부 '훈훈'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해온 노인이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를 해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이병관)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홍경식 씨가 합든 전주시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홍경식 씨의 기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홍 씨는 2020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100만 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홍 씨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 제가 받은 도움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



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병관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홍경식 어르신의 값진 기부에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시 나운3동, 오원집 착학가게 50호점 탄생

군산시 나운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종석)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후원을 약속한 오원집 군산 나운3동(대표 신경민)에 착학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학가게에 가입한 오원집 군산나운3동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착학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며 꾸준한 선행을 약속했다.

착학가게에 가입한 신경민 대표는 "기부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나눔 문화에 참여해준 착학가게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복지지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이 착학가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박홍순 나운3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원불교, 대각개교절 맞이 쌀 나눔

남원시 여성가족과(과장 임점숙)는 28일 원불교 남원교당에서 원불교 열린 날(대각개교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kg 152포대(환가액 500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교당은 은혜 쌀 나눔 행사를 4년째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시는 교당의 뜻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5가정과 사회복지시설 30여 곳에 쌀을 전달했다.

박지상 교감교무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점숙 과장은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경축하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앙동, '오손도손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 추진

전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손도손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관내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세대에 월2회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호정 위원장은 "반찬배달을 통해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부확인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1동, '항기 가득한 꽃바구니 만들기' 행사

전주시 평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와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는 28일 2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항기 가득한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화려한 색깔의 비누 꽃들을 직접 꽃바구니에 꽂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꽃바구니 만들기에 참여한 안모 어르신은 "혼자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외롭고 우울했는데, 화려한 꽃들을 예쁜 꽃바구니에 채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랜만에 동네 이웃들과도 함께 만나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탄소중립 생활 캠페인 홍보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8~29일 이틀 간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탄소중립 실천 행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대는 전주지역 5개 대학과 함께 기후 위기로 부터 안전한 2050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동참, '전주시 대탄생(대학의 탄소중립 생활)' 이어가기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탄소중립 생활 캠페인은 전주교대의 10가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행동 리플릿을 배부하고, 10가지 실천행동 암기하기, 탄소중립 관련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뤄졌다.

박병춘 총장은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준 덕분에 많은 홍보가 이뤄졌다"면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에 우리 대학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는 5월 중에 있을 탄소중립 생활 캠페인 2탄 '지금 우리대학은 탄소중립'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인후2동 지사협, 어린이날 기념 떡갈비 세트 후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동장 이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철규)는 28일 동 주민센터를 찾아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저소득 아동들에게 떡갈비 세트 30인분을 전달했다.

인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등 많은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철규 위원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어느 시기보다 주변의 이웃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하는 시기에 인후2동 이웃을 위하여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이어 받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소방서, 중학생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8일 한빛중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진로설계를 위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중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의 역사, 업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소방관련 학과 및 자격증 등 소방공무원 직업을 소개하고 방화복과 공기용기 등 소방장비 착용체험, 소방차량 구성 등으로 소방공무원에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소화기 사용법, 119신고 요령, 화재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받고 직접 교육을 마케킨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해보는 등 안전의식을 함양했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미래를 이끌 어갈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의 길에서 소방공무원이라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줄 거라며, 청소년들이 소방관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